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I-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7호 2014년 1학기



# C O N T E N T S

## 03 우송대학교 소식

- 창조경영대상 수상
-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AACSB 획득
- 지방대 특성화사업(CK-1) 선정
- 우송정보대학교 부총장 및 우송대학교 보건복지학과 학장 인사
- 간호학과 신입 교수 소개



## 04 나이팅게일 선서식

## 05 우송간호 글로벌 특집

-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신설
- 싱가포르 ITE 대학 초청
- N-CLEX RN 합격 1호, 안정섭 인터뷰

## 06 졸업 및 취업 소식

- 취업 동아리 및 4학년 취업 현황
- 졸업생 인터뷰

## 08 우송간호 역량 강화

- 해외 연수
  - Fairmont University
- 다양한 특강 소식
  - 국립공주병원 이영문 원장
  - 미국간호사 이영신
  - 우수 기업 동문 멘토
  - 건양대학교 병원 간호부장 배영희
  - 삼성서울병원 문광기 간호사
  - Handstudio 안준희 대표이사
  -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안옥 계장



## 14 간호학과 동정

- 새내기 컨테스트
- 새내기 소통프로그램
- 미리 가보는 대학
- M.T 행사
- 스승의 날 행사
- Budy Budy
- Pajama Talk
- 건강 걷기대회
- 치매 센터 발대식
- 동아리 소개
- 보건교육 경진 대회



## 16 학년별 대표 인사

- 학회장
- 각 학년 대표
- 편집국장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박소희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의 산실, 우송대학교

# 우송대학교 '2014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 수상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2014년 3월 13일 '2014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대상'을 수상했다. '2014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선두에 있는 34개의 기업과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송대학교(총장 존 엔디컷)는 세계화 및 특성화 선도대학을 지향해 왔다. 특히 '솔브릿지 국제대학'에서 전문화된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시아 최고의 국제경영대학'을 향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GPS전략(Globalization: 세계화, Partnership: 파트너십, Specialization: 특성화)을 바탕으로 1년 4학기제, 산학협력, 융합교육, 글로벌 역량강화 등 창조인재경영에 앞서나가고 있다.

>> 박소희 기자



[ 우송대학교 소식 ]

##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세계상위 5% 경영대학인증 세계경영대학 평가인증(AACSB) 획득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은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로부터 경영학교육 국제인증을 받았다. AACSB(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 :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International) 인증은 하버드, 와튼, 칼럼비아 등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시작된 경영학 교육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적 인증으로 전 세계 대학의 5% 미만, 미국 대학의 약 10%만이 보유하고 있을 만큼 교수, 학생, 시설, 재정 등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우송대학교의 AACSB 인증 취득은 국내 대학들 중 14번째로, 비수도권사립대학 중에서는 처음이고 특히, 설립 6년 만에 취득이라는 세계 최단기록을 수립하는 등 매우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AACSB의 인증으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학생은 AACSB 인증을 받은 하버드 코넬 등 외국경영대학과 상호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AACSB 인증 취득은 완벽한 글로벌 교육환경, 차별화된 교육과정, 다양한 학생밀착지원 등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은 글로벌 환경조성을 위해 교수진의 80%를 해외명문대학 출신의 외국인 교수로 구성했고 30여개 국가에서 유학생을 모집하며 모든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조지아텍(Georgia Tech), 일본 메이지대학교 등 해외 명문대학들과 2+2, 1+1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존 엔디컷 총장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경영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우주희 기자



[ 우송대학교 소식 ]

## 우송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 3개 사업단 최종 선정

교육부

### '2014 대학 특성화사업(CK-1) 3개 사업단 선정' 5년간 114.5억원 지원

1. 국제화 분야 우수사례 선정 (50억원)
2. 지방대학 특성화 우수사업단 선정 (49.5억원)
3. 교육 보육 협력모델을 활용한 글로벌 유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15억원)



우송대학교(이하 우송대)는 교육부의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1, CK-1)선정에서 3개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아시아전문 경영인력 양성사업단', '철도 클러스터를 연계한 글로벌 철도전문인력 양성사업단' 및 '글로벌 유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3개 사업단은 5년 동안 총 114.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우송대는 '철도 클러스터를 연계한 글로벌 철도 전문 인력 양성사업단'을 통해 철도 실용인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또, 방학을 활용한 고교생 교육과 취업진로 과정 확대, 대전·충청권 철도 위상 향상 및 철도시장 진출 필요성 등을 피력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와 세계화, 산업협력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온 것이 이번 사업단 선정에 기여했다.

교육부의 지방대 특성화사업(CK-1)은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대학 서열화를 탈피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 대학 고유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 임지윤 기자

[ 교수동정 - 취임사 ]

# “ 우송대학교, 꿈을 실현하는 장으로 ” 우송정보대학 부총장, 이현주



자랑스러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여러분!

갑작스레 우송정보대학으로 가게 되어 작별인사도 미처 나누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울고 웃었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송대학교의 글로벌 특성화와 간호학과 고유의 특성을 접목하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특성화 전략인 국제간호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어 단기간에 우수학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어 몰입교육과 국제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2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대학의 신선편과가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사실, 간호학과는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만 운영해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국제화 프로그램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교수님들을 믿고 잘 따라와 주었고 그러한 노력이 우송대학교를 한층 더 발전하게끔 만든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성실함과 예의바른 모습들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짧은 교수생활이었지만 교육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을 통해 실감하였고 저 또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교육의 성패는 학생, 교수, 대학이 함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좌우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송정보대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수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랑스러운 우송인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로 ”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학장, 송재찬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은 81.3세로 기대수명이란 연령별, 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입니다.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여 좋아하기는 이쁜데 이는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6세입니다. 81세까지 살 수 있지만 15년은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거나 자리보전을 하는 등 골골거리면서 산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통계 결과에서 보건복지대학 전공자들이 해야 할 일과 미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가 되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보건복지 전문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전공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우송대학교는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보건복지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대학에서 많은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에서의 학교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의 정성과 노력이 여러분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보다 건강하고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대학 구성원 하나하나가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간호학과 신입 교수 소개 ]



Michael

MTC Day of Honor  
Manila Tytana Colleges  
Formerly Manila Doctors College  
PDMB, Pasay City



Monica

Doctor Of Educaton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Ed.D.)  
Pamantasan ng Lungsod ng Maynila(University of the City of Manila)

# 제 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4년 5월 14일 제 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인환 교수와 James 교수의 공동사회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서식에서는 John E. Endicott 총장과 김성경 이사장이 각각 기념사와 격려사, 미군 121 병원의 Janet R. Kropf 대령과 이강이 대안간호사협회장이 각각 축사를 전달했다. 이 외에 학생들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전다혜 외 89명의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를 지향하는 간호학과의 학생답게 한글과 영문으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했다. 또한 간호학과 학생들과 윤계숙 교수의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첼로 합주와 2학년 학생들의 'Imagine'곡 합창은 강당 전체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물들였다.

이번 제 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밝힌 90개의 촛불처럼 그들이 앞으로 밟아나갈 간호사로서의 길이 항상 밝고 희망차게 타오르길 바란다.

>> 김진성, 문예진 기자

## 촛불과 함께 훈훈해진 학부모 간담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이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학부모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의 마음을 담은 영상편지와 3년 동안의 학교생활을 담은 동영상 시청하고 어버이날을 겸하여 어버이노래를 부르는 등 부모님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현주 학장과 정은영 학과장은 이 시간을 빌어 학부모님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선서식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2011학번 재학생 대표 나정민

[ 우송간호, Global 특집 ]

##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영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 신설



우송대는 AACSB인증을 받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과 함께 세계 5% 명품학과에 오를 글로벌학과 5개 (글로벌 조리학과, 글로벌 호텔매니지먼트학과, 글로벌 의료서비스경영학과, 글로벌 철도융합학과, 국제경영학부 글로벌 비즈니스전공)를 2015년에 신설하였다. 그 중 '글로벌의료서비스경영학과'는 증가하고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의료관광 인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경영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이다. 이 학과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이해하고 글로벌화 된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국제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실질적인 이해를 제공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영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교과목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임상경험을 가진 외국인 교수진에 의해 재학생 해외연수 파견 및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검진 센터 인턴과정을 통한 실무 중심의 의료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박미희 기자

## Global Exchange Program - 싱가포르 ITE대학 학생 방문



싱가폴 Insitute for Technical Education대학 학생들이(간호학과 10명, 물리치료학과 2명)이 'Global Exchange program'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30일부터 6일간 우송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주관으로, 환영회 및 한국문화체험(전통한복입기, K-POP공연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기초해부생리학, simulation강의 참여와 실습기관인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임상현장을 경험하는 등 학과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한국 간호사의 업무를 직접 보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양국 간호 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몸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아진, 장민주 기자

[ 우송간호, Global 특집 ]

## “ NCLEX RN 합격 1호! ”

### - Fairmont State University 안정섭(2010학번) 인터뷰



#### 1. Fairmont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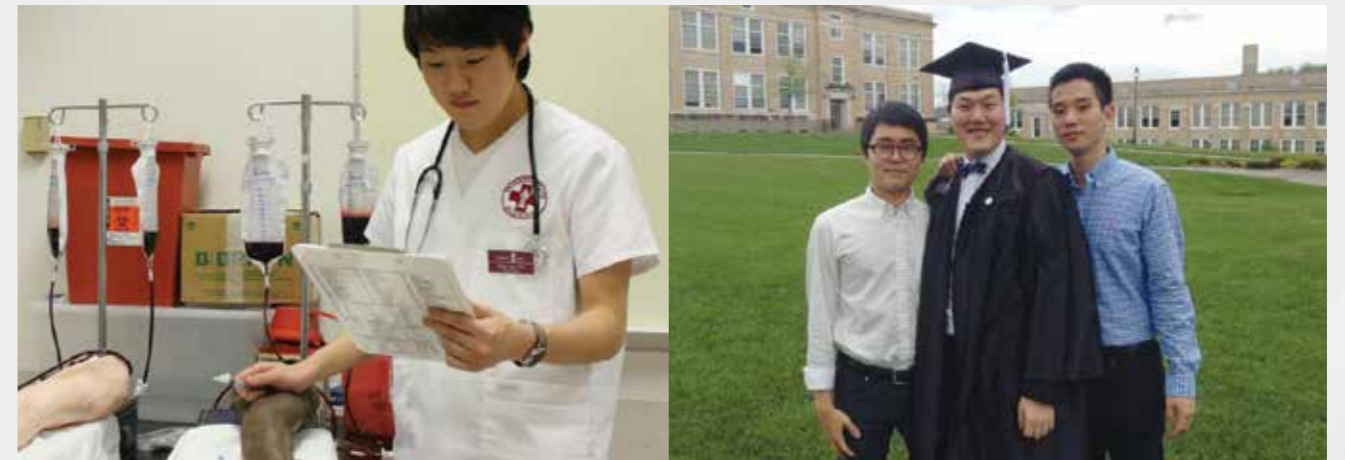
제가 2년 동안 머무르며 공부했던 Fairmont West Virginia주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West Virginia는 주의 구호(slogan)가 Wild and Wonderful일 정도로 넓고 깨끗한 산과 숲이 유명한 주입니다. 대도시 주변에 있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미국 생활과는 달라서 처음 도착했을 때는 꽤나 생소하고 의아해하기도 했구요. 어떻게 보면 지루한 생활일 수도 있겠지만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적응해 가면서 오히려 그 덕분에 여유로움을 즐길 줄 알게 되었고,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 2. Fairmont State University와 우송대학교의 차이

FSU는 우송대학교 동캠퍼스와 서캠퍼스를 합친 정도로 아담한 크기의 학교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약 80-9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2년 간 한 강의실 안에서 수업을 들으며 지냈구요. FSU에서는 첫 학기부터 거의 매 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상실습 시에는 환자 1명당 학생간호사 1명이 배정되어, 실습시간 동안 학생간호사가 한 환자의 전반적인 간호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학생간호사는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보조, 침상정리 및 영양/배변/배뇨 관리에서부터 정맥 채혈 및 주사, 투약지도와 수혈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중재를 실제로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담당 instructor와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및 청소담당 등 원내 다양한 직종 사이의 의사소통에도 참여하여 임상에서 간호가 어떻게 다양한 직종을 코디네이터하고 있는지도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 3. NCLEX-RN 합격시기 & 공부 방법

실제로 오로지 NCLEX-RN 시험만을 위해 공부했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가다가 종강을 하자마자 바로 5월 10일에 졸업식을 하고 6월 14일에 시험을 봤으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약 한 달 남짓한 기간뿐이었습니다. 또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기가 이미 종강한 이후였기 때문에, 정규학과와 다르게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없이 혼자 공부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 일주일 동안은 사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시원과 유사한 기관인 NCSBN (National Council of State Boards of Nursing)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에 등록해 마음잡고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최대한 일반학과와 비슷한 일정으로 맞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시작해 저녁에는 기숙사 돌아와서 1~2시간 정도 더 마무리하는 식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루 약 8-10시간 정도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CLEX-RN은 최소 2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최소 75문제에서 최대 265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난이도가 꽤 높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내내 초조해 하기도 했고 푸는 속도가 더디기도 했구요. 그러나 풀어 낸 결과가 좋았던지, 약 3시간동안 75문제를 끝내고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3일 정도 지나 Fairmont주 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였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 4. 앞으로의 계획

바로 복학하기보다 우선은 군복무를 마칠 계획입니다. 입영은 오는 9월에 의무병으로 신청하였고, 계획대로라면 2016년 가을학기에 4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송간호 5기인 13학번 후배들과 함께 2017년 이른 봄,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졸업 후 우선 국내병원에 취직하여 경력을 쌓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5.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NCLEX-RN 시험 준비 자체는 정상적으로 간호학과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단순한 지식의 확인이 아니라 간호사가 돌봄의 주체로서의 어떠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을 내리는 지를 묻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대한 훈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간호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학점을 관리하는 것이 분명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생인 만큼 우송대학교와 우송간호학과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캠퍼스 밖에서의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도 관심을 열어 두고 참여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목적 의식을 항상 품고, 현재의 정체성에 계속 질문을 던지고,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간호계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참된 리더의 길로 꾸준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주희 기자

# 모의도 실전처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간호학과 취업 동아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학과만의 특색 있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교수님 별로 10명 정도의 4학년 학생들이 팀이 되어 활동하는 취업동아리이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해주고 교수님과 모의 면접을 하거나 팀원들끼리 면접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는 등 취업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9개의 팀 중, 강창희 교수님의 취업 동아리 팀인 'ICU'는 'Intensive Cooperation Unit'의 약자이면서 영화 아바타의 명대사 "I see you" 즉, '나는 당신을 이해한다'는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주기적으로 모여 모의 면접을 시행하고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면서 취업을 위해 상부상조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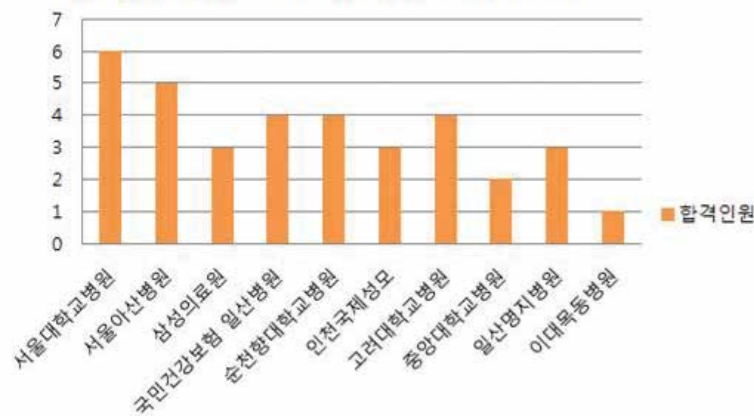
또 다른 팀인 오향순 교수님의 취업 동아리 팀에서는 단기 계획 및 장기 계획을 짜서 일주일에 두 번의 모의 면접 뿐 아니라 뉴스를 요약해 공유하는 등 시사 상식을 익히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학점, 토익 등에 관한 실적 보고서 작성을 통한 동기 부여 및 자신의 부족한 점 파악도 이뤄지고 있다.



>> 우주희 기자

## 4학년 취업 현황

4학년 취업현황(8월 30일 기준 현황-중복합격 3명)



2014년 8월 30일 현재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58명 중 32명이 취업에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6명, 서울아산병원 5명, 삼성의료원 3명, 고려대학교병원 4명, 중앙대학교 병원 2명 등의 재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 임지윤 기자

# 자랑스런 동문들

### ◆ 손지하 [2009학번, 2013년도 졸업]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09학번 1기 졸업생으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지하입니다.
2. 중환자실에서는 처음으로 '모범직원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상인가요?



신경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보호자나 환자 본인이 간호를 받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거나 친절하며 인상적인 간호사에게 칭찬카드를 많이 써주시면 그 점수를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 3. 상을 받은 소감이 궁금합니다.

중환자실 환자들이 의식이 없다고 해도 투약하거나 다른 처치를 할 때 항상 먼저 설명을 하고 했고, 수술실에서 바로 온 환자들 같은 경우도 마취가 덜 풀려 의식이 없다고 해도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항상 진심을 담아서 환자를 대했고 이 진심이 보호자분들께도 전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 환자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도 많아졌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받게 되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을 받지 않더라도 항상 상을 받았던 기억을 새기며 언제 어디서나 모범이 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4. 입사한지 1년이 되셨는데, 1년 동안 달라진 점이나 느낀점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전에서 많이 해보고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회생활에서 좋은 선생님과 동기들을 만나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차고 좋았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3교대가 너무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다소 쇠약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병동동기들과 같이 이겨내며 좋은 선배선생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앞으로도 어려운 병동생활을 잘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 5.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후배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입사지원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학점관리 잘하고 영어도 열심히 해서 좋은 병원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건 기숙사생활을 할 때 동기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동기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타 학과와는 다르게 졸업하고서도 잘 챙겨주시니깐 말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기들은 나중에 힘이 될 때 힘이 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친구니까 다들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나중에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간호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이고, 환자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뭐든 잘 이루어질 것이고 배우는 점이 많을 겁니다.

### ◆ 최소영 [2009학번, 2013년도 졸업]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학과 1기 졸업생인 최소영은 친절 간호사 2관왕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병원 간호부 뉴스레터의 표지 모델로 발탁되며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 우송간호 역량 강화 - 특강 ]

# 우송 간호의 인재, 미국으로 진출하다!

## Fairmont State University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2014년도 Fairmont State University(FSU)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4명이 선발되었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우송대 간호학과 교육과정 2년 이수 후 2년간 미국의 FSU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는 프로그램으로 4년 동안 한국과 미국대학의 학위는 물론 양국 간호사 면허 2개를 모두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 복수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 인터뷰



최우원 학생

Q : 우송대학교와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프로그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간호학과 과정은 한국의 간호학과 과정과는 다른 면이 몇몇 있습니다. 우선 수업을 하는 분위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곳 학생들은 수업 중에 질문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교수님들께서도 질문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교과과정 역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실습을 가는 한국과는 달리 FSU는 학기 중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실습을 병행합니다. 이렇게 실습을 수업과 병행하다 보니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실습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Q : 복수학위 과정이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 복수학위 과정은 말 그대로 4년의 학사 과정 기간 동안 두 개의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기간 4년을 공부하면 미국의 간호학 학사 학위와 한국의 간호학 학사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년간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복수학위 과정에 참여하게 될 학생 인터뷰

Q : Fairmont에 가기 전에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나요?  
 A : 저는 1학년 때부터 Fairmont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1학년 여름학기 때 제일 먼저 토플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빨리 실천한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토플학원에 다니면서 '토플'에 대한 스타일에 익숙해졌고 방학이 지난 후 부터는 일주일에 1번이라도 지문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학원보다는 혼자 공부하면서 독해와 듣기 영역 2지문씩 풀고 오답을 정리했습니다. 토플 외에 학기 성적은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매우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Q : Fairmont에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영어로도 충분히 '간호'에 대해 깊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독립심을 기르는 것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인 학생

>> 박미희, 김유빈 기자

# 명 / 사 / 특 / 강



##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건강도 중요하다!” - 국립공주병원 이영문 원장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우송대학교 우송타워 강당에서 국립공주병원 이영문 원장의 강의가 열렸다. 이 날 이영문 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주어진 숙제라고 말했다.

>> 한다연 기자

## 간호사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과 대책 - 미국 간호사 이영신



2014년 4월 2일 수요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이영신 간호사의 초청 특강이 열렸다. 이영신 간호사는 미국의 간호학과 교육과정과 한국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설명 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간호사의 위상과 비전 및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예전과 달라진 현재 미국간호사의 취업 상황, 앞으로의 고용 추세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특강이었다.

>> 문예진 기자

## ‘취업성공스토리’ 우수기업 동문멘토 취업특강



2014년 4월 11일 우수기업졸업동문 특강이 우송대학교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간호학과 이수진 졸업생은 세브란스병원에 취직한 자랑스런 우수 간호인으로써, 후배들에게 학업과 학교 생활 그리고 취업에 관하여 여러 조언을 해주었다. 특강을 통해 간호학과 학생들은 취업에 대해 사실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김유빈 기자

## 건양대학교병원 취업 설명회 - 건양대학교병원 간호부장 배영희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우송대학교 우송타워 강당에서 건양대학교병원 배영희 간호부장의 특강이 열렸다. 학생들은 특강을 통해 건양대학교병원의 비전과 간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3학년 김선아 학생은 "가깝지만 잘 알지 못했던 건양대학교병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 임지윤 기자



## 명 / 사 / 특 / 강

### ‘한국의 구글’, Handstudio - 안준희 대표이사



2014년 5월 26일, ‘한국의 구글’이자 ‘굿 컴퍼니’로 잘 알려진 핸드스튜디오의 안준희 대표이사(이하 안대표)의 강제가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안대표는 대학 시절 암담했던 현실을 겪으며 생긴 자신만의 확고한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공은 학점이나 토익성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날 강의를 들은 1학년 이하영 학생은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우주희, 한다연 기자

### ‘미스터 나이팅게일’ - 삼성서울병원 문광기 간호사



2014년 5월 31일 삼성 병원 8년차 남자 간호사인 문광기 간호사의 특강이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특강은 문광기 간호사가 최근 출판한 ‘미스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30대란 늦은 나이에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의 중심에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 하게 된 이유와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전하였다. 또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삼성병원에 관한 동영상과 정보를 전달하였다. 문광기 간호사의 파란만장하고 진솔한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다.

>> 김진성, 문예진 기자

###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 - 동구 보건소 안옥 계장 특강



2014년 7월 18일 우송대학교 가정관 시청각실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안옥 계장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안옥 계장은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호사가 해야 할 일과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펼쳤다. 본 특강을 통해 우송간호 학생들은 중구 보건소의 특성상 필요한 간호와 그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장민주 기자



## 새내기



[ 간호학과 동정 - 새내기프로그램 ]

### 새내기 적응프로그램 I. ‘새내기 컨테스트’



2014년 4월 3일 목요일, 우송대학교 동 캠퍼스의 학생예술회관에서는 1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의 열띤 구호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은 우송대학교의 새내기들이 자신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날, 새내기 컨테스트이기 때문이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우송대 간호학과를 대표하는 노란색 티셔츠를 맞추어 입고 미리 준비해온 구호를 외쳤다. “FUN! FUN! PRIDE UP 우송간호!”. 비록 컨테스트에 간호학과 학생이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만은 평소 지고 있던 학업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축제를 즐겼다.

>> 한다연 기자

### 새내기 적응프로그램 II. ‘새내기 소통 프로젝트’



지난 2014년 4월 5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서캠퍼스 정보과학관에서 신입생을 위한 ‘간호학과 새내기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신입생들은 7개의 조를 이루어 전문 강사님들과 함께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표현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몸소 익혔다. 본 프로그램은 다양한 소통 체험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 새내기들의 행복한 대학생활이 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고 서로에게 칭찬 카드를 써주며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유혜민 학생은 “과대표를 맡으며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 김유빈 기자

## 간호학과 소통 프로그램 I. 'Budy Budy'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강창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간호학과 학회장 전다혜의 주도로 진행된 '버디 버디' 프로그램은 1학년들의 학과 적응을 돕기 위해 3학년 팀장 10명과 2학년 선배 버디 40명, 1학년 신입생 버디 80명으로 팀을 구성해 일주일에 한 번 특색 있는 활동 및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마지막 주 '학교 근처 카페에서 자기소개 및 친목 도모' 미션을 시작으로 '중간고사 학습 지도', '마니포', '만원의 행복', '병원 실습' 등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함으로써 1학년들의 적응을 돕고 선후배 간에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7월 15일 성과 발표회 및 수료증 수여식을 마지막으로 끝난 '버디 버디'에 대해 2학년 오준택 학생은 "바쁜 간호학과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준 건빵에 별사탕 같은 존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간호학과에 이러한 '별사탕'같은 프로그램들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우주희 기자

## 간호학과 소통 프로그램 II. 직접 마주하고 교류하는 'Pajama Talk!'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비래동기숙사는 한 방에 6명의 학생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각자의 공간에 커튼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2014년도부터 '파자마 토크'를 시행하는 중이다. 파자마 토크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6명이 모두 모여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고, 활발한 교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선후배 관계가 돈독해 짐으로써 간호학과의 단결력 역시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각 방의 사생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UCC를 제작하는 등 여러 가지 소재로 작품을 만들며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파자마 토크에서 그치지 않고 간호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활발한 교류와 단결력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더욱 힘 쓸 예정이다.

>> 박미희, 김유빈 기자

## 미리 가보는 대학

### - 예비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2014년 5월 24일, 6월 20일, 7월 18일 세 번에 걸쳐 우송대학교에서 학과별 체험 프로그램인 '미리 가보는 대학'이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우송대학교 학과 체험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과 별로 진행되었으며, 학과 소개부터 실습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참가율이 이슈가 되었는데,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가지원에 떨어진 한 학생이 간호학과 학과장님께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정보과학관 4층과 5층 실습실을 오가며 '우리 몸에서 나는 신기한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심음, 기관지음, 장음을 사람과 유사한 '피지코' 인형을 통해 들어보는 시간과 혈압계로 직접 혈압을 재보는 시간을 갖고, 모의실습 병원인 Sol-Hospital을 돌아보는 등 간호학 관련 실습을 직접 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외국어 이렇게 하면 쉬워요!'라는 코너에서는 다양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글로벌한 특징을 살려 재학생 중 일본의 오카야마 현립 대학을 다녀온 3학년 백효진, 위헤진 학생과 미국의 Fairmont State University입학 예정인 2학년 김예원 학생이 대학 소개, 외국어를 잘하는 비법, 공부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간호학과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

>> 이아진, 장민주 기자

[ 간호학과 동정 - 학과 행사 ]

# MT(Membership Training) 화목 다지기 - Sol-Fun에서 온 그대



2014년 4월 8일 우송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 학년이 참석한 MT가 이루어졌다. 일명 '에그리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조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 재학생들은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신입생들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몇 주간 같이 춤, 노래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뽐냈다. 본 행사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친목을 다지고 젊음과 열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이아진, 장민주 기자

# 스승의 날 행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2014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과 소속 교수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다함께 스승의 날 노래를 불렀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각각의 담당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작성해 전달해드렸다. 올해로 7번째인 스승의 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조촐하게 넘어갔지만,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김진성, 문예진 기자

[ 간호학과 동정 - 대외활동 ]

# 건강 걷기대회 -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건강해지는 우리



2014년 4월 12일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엑스포 시민광장에는 제42회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는 2014 대전 라디엔터링 건강 걷기대회가 열렸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5천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하였다.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도 체력을 보충하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대다수가 참여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동아리인 '절주'도 참여하여 금연·절주 캠페인을 홍보하고 무료로 혈압을 측정해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 한다면 기자

# 대전광역치매센터와 대학생 치매 파트너 협약을 하다! - 대학생치매파트너발대식 및 협약식



충남대학교병원과 대전광역치매센터는 6월 25일 오전10시부터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강당에서 치매 돌봄 문화 확산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수행할 대전지역 대학생 치매 파트너 양성을 위해 우송대, 우송정보대 등 대전 지역의 9개 대학 11개 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대학생 치매 파트너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생 치매 파트너 사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에영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발대식을 통해 대전광역치매센터가 앞으로 지역 내 대학생들과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더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독려할 것이다"고 전했다.

>> 김진성, 문예진 기자



[ 간호학과 동정 - 동아리소개 ]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절주 동아리 - ‘(주인)’



우송대학교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절주문화를 주도하는 ‘主人(이하 주인)’이라는 절주동아리가 있다. ‘주인’이란? 술에 취한 사람(酒人)이 아닌 사람이 술의 ‘주인(主人)’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며 건전음주문화 정착을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본 동아리는 2011년 간호학과 동아리로 창설이 되었지만 2012년 중앙동아리로 승격하였다. 주인은 교내활동으로는 절주로, 헬스포유, 1/2잔 배포 프로젝트, 절주 UCC, 주인 SNS 등이 있고 교내 뿐만 건강보험공단 주최 걷기대회를 통해 혈압, 혈당 측정, 절주 방법 알리기, 우송 중·고교 절주 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성과가 기대되는 동아리이다.

>> 이아진, 장민주 기자

### 기독교 동아리 - ‘힐링캠프’



힐링캠프란? 학업으로 인해 지치고 힘든 마음을 성경의 말씀으로 ‘healing’하는 기독교 동아리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전체모임을 갖고, 두 번은 4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으로 모여 큐티(Quite Time)를 진행한다. 큐티란 동아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또한 간호학과만의 개강예배와 종강예배를 드리고 동아리 MT를 통해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힐링캠프는 기독교인은 물론, 다른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이다.

>> 이아진, 장민주 기자

### 가톨릭 동아리 - 'Koinonia'



2014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새로 생긴 동아리는 김경아 교수님 지도 아래 20여명으로 구성된 천주교 동아리이다. 동아리 이름인 'Koinonia'는 '친교'를 뜻하는 단어로, 일주일에 한번 신부님, 수녀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개강미사와 종강미사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끼리 천주교 전례력에 따라 부활절 미사 등을 함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전 교구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에 소속되어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하고 있다.

>> 김진성 기자

### 토익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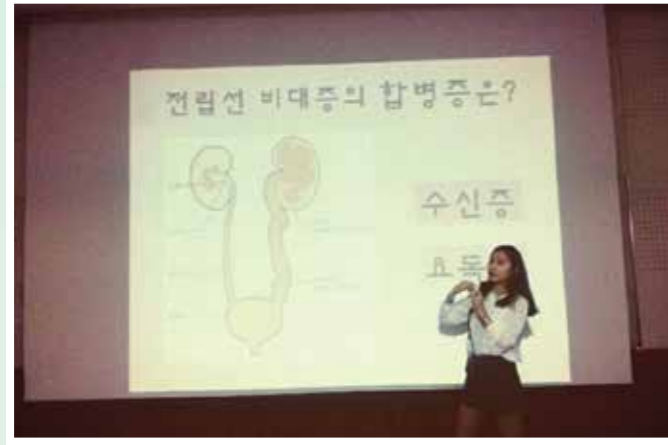


윤계숙 교수님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토익 동아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모여서 자체 토익 단어 시험을 본다. 읽기 영역은 일정량을 정해 숙제로 해오고, 듣기 영역은 현장감을 위해 매 모임 시, 2개의 part를 듣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계속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토익뿐만 아니라 SSAT나 성적에 대해서도 교수님과의 모임을 통해 상담을 받곤 한다.

>> 우주희 기자



## 보건교육 경진 대회



2014년 7월 21부터 7월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은영 교수님의 지도 아래 간호학과 2학년의 보건교육경진대회가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17개의 팀이 학령 전기에서 노년까지 연령 별, 직업 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보건교육대상자로 설정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보건교육을 하고 5명의 심사위원과 교수님께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경진 대회 결과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및 동상 각 3 팀 등 총 9팀에게 수상을 하였는데, 대상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양치질의 중요성을 뽀로로를 이용해 시행한 배은유 외 3명에게 돌아갔다. 여름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던 보건교육학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17개 팀 모두 적절성과 재미를 놓치지 않는 무대를 준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었다.

>> 우주희 기자



### 학생회장 - 3학년 전다혜

안녕하세요, 2014년 1학기 학회장 12학번 전다혜입니다. 1학기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학기동안 MT와 나이팅게일 선서식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많이 도와주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학회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신 교수님들, 학생회 임원들 그리고 간호학과 학생 전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2학기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학생회 여러분께 응원말씀 드리며, 간호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1학년 대표 - 유혜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지내온 나날들을 회상해보니 과대표를 선출하던 학기 초가 생각납니다. 과대표 선출 당일까지도 별 뜻이 없었지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지원을 했는데 학과 친구들이 만장일치로 지지를 해주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대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과제가 많거나 시험기간에 임박했을 때에는 정말 정신없었는데 그래도 바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그 순간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명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대표 일을 하면서 심적으로 힘들고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지만, 친구들에게 응원문자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며 '이 맛이 과대표를 하는 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를 지내고 나니 이젠 다 적응이 되어 다음 학기에는 오히려 이치 열했던 시절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친구들과 앞에서 다짐한 목표를 지금 와서 다시 되새겨보니, 목표 이상으로 이루어 낸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커리큘럼 특성상 공부양이 참 많은데 학생회를 하면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면, '학생회 일'과 '학업'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 처음 와서 과대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정말 좋았고, 스무 살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많이 도와주고 동고동락한 A반 과대표 수정이, 부족한데도 잘 따라준 14학번 친구들, 실수투성이었지만 나무라지 않고 격려해주신 학생회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2학년 대표 - 김지현

안녕하세요! 2학년 1학기 과대표 김지현입니다. 벌써 또 한 학기가 흘렀습니다. 재미있고도 유익함이 많은 시간들이었는데요. 2학년이 되어 1학년보다 더 많은 과목을 배우면서 간호학과의 참맛을 볼 수 있는 학기였던 것 같아요. 1학년 때와는 많이 다른 2학년의 과대표를 하면서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일들 덕분에 끝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배우는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과대표라는 직책의 무게를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며 배워나갔습니다. 두 번째 과대표를 맡은 만큼 직전 학기 때와 같이 혹은 더 나은 과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부진하진 말아야지 하는 다짐으로 한 학기를 보냈는데, 많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의 격려와 응원덕분에 힘을 내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배들도 생겨 본이 될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도 일조를 했죠. 감사히도 처음 후배가 생기고 선배로서 일학년들과 함께한 학기이기에 우리 2학년들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학기에 교수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는 좋은 시간들이었는데요, 모든 교수님들께 부족한 저를 한 학기동안 가르쳐주시고 성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1학기 과대표로 저를 많이 따라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힘써주었던 2학년 이쁜이, 멋쟁이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 3학년 대표 - 박연솔

안녕하세요 3학년1학기 과대였던 박연솔입니다. 과대를 하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자면, 3학년 과대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있어야하는 자리가 된 후 솔직히 고단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바쁜 일도, 챙길 것도 많았고 실수도 여러 번 했었죠. 한번은 수업시간에 제가 졸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과대 일을 하면서 나에 대한 책임감이 이렇게 소홀해졌다.' 조금 후회됐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잘 따라 와준 아이들 덕분에 무사히 3학년 1학기 과대를 무사히 마쳤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 책임감도 느끼고 배울 점도 많이 있었고, 실수에 대한 만회와 책임, 과대로서의 리더십 등 저의 3학년 1학기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저를 믿고 따라주었던 동기들 너무나 수고했고 고맙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도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값진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저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4학년 대표 - 김지연

안녕하세요. 4학년 과대표 김지연입니다. 최고 학년인 4학년 과대표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1~4학년들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개성의 친구들이 모여 간호학과를 꾸려나간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학년 과대표들과 많은 학생들의 도움으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 나이트게일선서식과 'buddy buddy'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buddy buddy' 프로그램 보고회의 진행과 마무리를 담당하여 1~3학년들이 1학기 동안 한 활동들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보고회의 전체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 활동에는 특히 저와 함께 4학년 김지은, 정지운 학생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습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꼈고, 1~3학년들의 기획력과 그 동안 해 온 활동을 보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4학년 과대표라는 이유로 최종보고회의 전체진행을 맡아 부족함이 많았지만 이 경험 또한 후배들과 얼굴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선후배끼리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4학년 동기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대표인 만큼 동기들의 취업에 관해 신경 쓰고 후배들을 위한 면접 tip들을 정리하는 일을 4학년 1학기 과대표의 마지막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힘들었을 텐데 후배들을 위해 면접 분위기나 여러 가지 tip들을 정리해서 매번 보내주는 4학년 학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송간호 3기 동기들 모두 원하는 병원에 취업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학생활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D 많이 부족한 과대표였지만 잘 따라와줘서 감사합니다.

### 편집국장 - 3학년 임지윤

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1학기 편집국장을 맡은 12학년 임지윤입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소식지인 'Sol-Nursing Times' 기획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이 담긴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2014년 전반기의 우송대 간호학과를 표현하는 단어는 '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버디버디', '파자마톡',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정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간호학도이기에 어쩌면 조금 힘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항상 곁을 지켜주는 우송간호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한 학기동안 저마다의 꿈을 향해 값진 땀방울을 흘린 모든 동기 및 선후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지도해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부족한 국장과 함께 지금의 'Sol-Nursing Times'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편집국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7호 2014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